

명절 가정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모여, 자녀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신 부모님과 조상을 기억하고, 오늘에 있기까지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순서지는 하나의 견본으로 상황에 따라 순서나 시간 등은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순서가운데 설교 이후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시거나 덕담의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명절 기간 동안에는 밀지 않는 가족분들을 위하여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 주시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랑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설교 전문]

국제 정세의 위기와 경제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 나가면서 줄어드는 말은 “감사” 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도 소망과 위로를 얻는데, 하물며 창조주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얻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감사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루지 못한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주께서 이루신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 받았습니다. 이 영원한 승리 가운데 우리 삶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날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세상으로 향하게 된다면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할 일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중에 반드시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기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말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를 위하여 순서를 정하여야 합니다. 한번 지나면 되돌아 올 수 없는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하는 날을 통하여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감사를 상실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우선순위 없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허무”라는 열매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삶을 정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주의 은혜 아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기며 나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승리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헛되지 아니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날 “잘 하였다.” 칭찬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인도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어가는 교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엡4:2-4)



예배의부름 ----- 인 도 자

추석을 맞이하여 이시간 다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아멘)
창조주 하나님, 이시간 주 앞에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님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신 앙 고 백 ----- 다 갈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찬송가 96장 ----- 다 갈 이

1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놓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자의 빛이시며 병든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3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4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대 표 기 도 ----- 말 은 이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붙들여 주시고 삶의 자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 굳은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나가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붙들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안에서 형통한 삶을 열어주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에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고린도전서 15장 57-58절 ----- 인 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말 씬 ----- 신앙인의 감사생활 ----- 말 은 이 찬 송 ----- 찬송가 384장 ----- 다 갈 이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 하리요
1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2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3절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 기도 문 ----- 다 갈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